

몽 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8. 2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8
IV. 국제신인도	11
V. 종합의견	13

I. 일반개황

면적	156만 km ²	G D P	112억 달러 (2016년)
인구	300만 명 (2016년)	1 인 당 GDP	3,704달러 (2016년)
정치체제	이원집정부제	통 화 단 위	Tugrik (투그릭)
대외정책	친서방 실리외교	환 율(달러당)	2,011 (2016년 평균)

- 아시아 북방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7배이나 인구는 300만 명에 불과해,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국가임.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 약 1,500m의 고원지대이며 남북으로 중국,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.
- 1921년 구소련의 지원을 받아 중국으로부터 독립하였고, 1924년 공산정권을 수립하여 인민혁명당 1당 체제 하의 계획경제를 실시하였음. 그러나 1992년 구소련 붕괴 이후 민주공화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함.
- 구리, 석탄, 형석 등 80여 종의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, 2000년대 초 광업 부문의 호조에 따른 고속 성장을 달성함. 이후 광업 부문 침체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었음.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반등, IMF 구제금융 지원 등으로 2017년 경제성장률이 2%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.
- 지정학적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정치·경제 의존도가 높은 편이나, 최근 '제3의 이웃정책' 하에 일본, 인도 등 국가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 표 1 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14	2015	2016	2017	2018 ^f
경제성장률	7.9	2.4	1.0	2.0	2.5
소비자물가상승률	12.9	5.9	0.6	4.4	6.0
재정수지 / GDP	-11.3	-8.5	-17.0	-8.7	-7.4

자료: IMF

□ 광물 수출 호조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으로 2% 대 경제성장

- 광물가격 상승세 및 투자 증대 등 광업 부문 급성장으로 2011~13년 연평균 성장률이 13.5% 기록하였으나, 2014년 이후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대중 수출 부진,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, 외국인 직접투자(FDI)* 급감 등 악재로 2016년 1%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.

* 연도별 FDI 유입액 추이(억 달러) : 20.6('13) → 3.4('14) → 0.94('15) → -40.7('16)

- 2017년 경제성장률은 5월 중 국제통화기금(IMF)의 구조개혁 요구에 따른 긴축 재정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석탄, 구리 등 광물가격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및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2.04% 수준으로 회복하였음. 리오 틴토사(Rio Tinto)*와 몽골 정부 간 오유 톨고이(Oyu Tolgoi) 광산** 2단계 프로젝트 개발 착수로 인해 2018년에도 2.5% 수준의 경제성장을 유지할 전망이다.

* 철광석 생산량 기준 세계 2위인 호주의 다국적 광산개발업체

** 구리(3,700만톤), 금(1,275톤) 등이 매장된 세계 최대의 구리·금 광산이자 몽골의 전략광산으로 동 광산의 2단계 개발 프로젝트는 2019~20년경 개발 완료 및 상업적 생산 개시가 예정됨.

□ 원자재 가격 회복, 광업 부문 투자 유입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

- 2013~15년 중 외화 부족 및 투그릭화 가치 급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.1%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. 반면 2016년 중 원유, 구리 등 원자재 가격 하락 및 성장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.6%로 급락함.

- 투그릭화의 대미 달러환율은 몽골 광산 경기 침체 및 외국인 투자 이탈과 함께, 시중 통화량이 증가 하는 등으로 급격한 상승(투그릭화 가치 하락) 추세를 보였음.

* 환율추이(투그릭/달러): 1,524('13) → 1,818('14) → 1,970('15) → 2,140('16) → 2,440('17)

- 2017년에는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반등에 따른 경제 성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.4%를 기록하였으며, 2018년에도 견조한 광업 부문 투자 유입 기대에 따라 소비자 물가는 6% 대 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.

* 국제유가(브렌트유 기준, 달러/배럴): 112.2('14) → 59.45('15) → 37.9('16) → 56.8('17)

** 구리가격(런던금속거래소 기준, 달러/톤): 6,359('14) → 4,702('15) → 5,501('16) → 7,157('17)

□ 구제금융 합의에 따른 긴축정책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 폭 축소

- 몽골정부는 2010년 재정 안정법(Fiscal Stability Law) 제정을 통해 2013년부터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을 2%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자원 개발과 연계한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로 2013~15년 중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은 10% 내외의 만성적인 적자를 시현함.

* 재정수지/경상GDP(%) : -8.9('13) → -11.3('14) → -8.5('15) → -17.1('16)

- 2017년 상반기 중 GDP의 절반에 상당하는 구제금융(약 55억달러*)을 지원받기로 합의하고 개인소득세제 개편 등 긴축정책을 시행하면서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은 전년(-17.1%) 대비 감소한 -8.7%를 기록함.

- 몽골 정부는 IMF의 예산 수입 증가 및 지출 감소 요구에 따라, 2018년 1월부터 술·담배 특별세 인상(2018년 10%, 2019년 5%, 2020년 5%) 및 개인소득세 인상(소득구간별로 10~25%까지 인상) 등의 세수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음.

* IMF 4.3억달러, 아시아개발은행(ADB)·한국·일본 약 30억달러, 중국과 통화스왑 계약연장 약 20억달러(150억위안 상당)

- 다만, 2017~19년 3년간의 IMF 구제금융 자금 유입 등 감안시 재정적자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, 장기간의 경상수지 적자 누적,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(95%) 등 감안 시 2018년에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GDP의 -7.4%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3C(Coal, Copper, China)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 구조

- 몽골 정부의 산업구조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, 석탄, 구리 등 광업부문이 몽골 GDP의 19.9% 및 총수출의 71%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 또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자동차, 기계 등 공산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세계 경기변동 및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등 대외적 충격에 취약한 편임.

< 표 2 > 몽골의 산업별 GDP 구성비

단위: %

구 분	2013	2014	2015	2016
광 업	20.2	17.6	16.7	19.9
농·목축업	14.5	14.0	13.7	12.0
도소매업	17.4	16.4	11.9	11.3
제 조 업	8.3	10.6	8.4	6.7

자료: 몽골통계청

<표 3> 몽골의 총수출 및 광물 비중

단위: 억 달러, %

구 분	2013	2014	2015	2016
총수출	42.7	57.7	46.7	49.2
광물	34.9 (82%)	47.9 (83%)	36.8 (70%)	34.8 (71%)

주: () 안은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광물 수출 비중

자료: 몽골통계청

- 내륙국의 지리적 한계로, 생산된 광물의 대부분이 인접국인 중국으로 수출 되는 비중이 80%로 교역국 다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른 광물수요 및 투자 감소가 최근 몽골 경제 성장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함.

※ 대중국 수출 비중(%) : 83.7('13) → 88.5('14) → 84.0('15) → 80.0('16)

나. 성장 잠재력

□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에 따른 투자 및 수출 증대 가능성

-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 부국으로 구리(매장량 5,500만톤, 세계2위), 형석(1,200만 톤, 세계3위), 석탄(1,750억톤, 세계4위), 우라늄(6,300만톤, 세계14위) 등 80여종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, 최근 광물가격 상승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가 늘고 광물 수출로 인해 상품수지가 개선됨.
- 정부는 2006년 15개의 전략광산*을 지정해 정부가 동 광산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고, 광산개발 추진 및 생산된 광물자원의 수송을 위해 2021년까지 중국, 러시아, 일본, 한국 등과 남부지역과 동부지역 및 전략광산을 연결할 철도,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임.

* 수요가 많은 광종을 보유하고 국가안보와 국가·지역경제·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광산으로서 연간 생산규모가 GDP의 5% 이상인 광산

몽골의 15대 전략광산 위치



출처: 몽골 대사관

- 특히 오유 톨고이(Oyu Tolgoi)는 세계 최대 구리 광산으로 2단계 프로젝트의 개발 완료 및 생산 개시 시점인 2020년에는 동 광산의 금·구리 수출이 몽골 GDP의 55%, 재정수입의 20%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.

다. 정책성과

□ 철도 등 수송 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이나 성과는 미진함

- 몽골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송 인프라 미비에 따른 열악한 물류여건이 광업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- 대부분의 철도가 1940~50년대에 부설되어 전반적으로 노후화 되어 있으며 수도 울란바토르를 비롯한 북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남부 지역은 열악함.
- 이에 정부는 2010년 총 5,600km에 달하는 1~3단계 철도인프라 구축계획*을 발표하였으나, 재정난 및 정치적 갈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음.

- * 1단계 : 서남부-동북부 간 연결 철도 (1,100km)
- 2단계 : 남고비-중국 국경 간 연결 철도 (900km)
- 3단계 : 서북부-중국·러시아 국경 간 연결 철도 (3,600km)

□ 국제기구 차관 도입 등으로 투자환경 개선 및 채무불이행 위험 완화

- 2013년 이후 심각한 경기침체로 재정적자, 외환위기 및 환율 급등 등의 상황에 직면하였으나, 2017년 중 IMF의 구제금융 도입 합의, 중국과의 통화스왑 만기연장 등 유동성 확보에 성공하며 채무불이행 위험이 일부 완화됨.

□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한 국가산업정책 추진

- 몽골 국회는 2008년 ‘국가개발전략(‘07~‘21)을 최종 승인하여 6대 우선 개발 과제*를 선정하는데 이어, 2015년에는 광업 중심의 경제구조 탈피,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 육성을 목표로 ‘국가산업정책’을 제정함.
- * ① 전략 광산을 중심으로 한 고도성장 추진, ② 수출주도형의 지식기반 경제 수립, ③ 인프라 및 국토개발을 통한 도·농간 격차 축소, ④ 전반적인 몽골 국민의 개발, ⑤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 조성, ⑥ 정치적 민주주의 강화
- 이를 위해 1단계(‘15~‘20년)로 원자재 국내 가공,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고, 2단계(‘21~‘25년)로 수출지향 산업을 강화하여, 3단계(‘26~‘30년) 지식기반 산업 발전에 주력할 계획임.

3. 대외거래

< 표 4 >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4	2015	2016	2017	2018 ^f
경 상 수 지 ^{주)}	-1,405	-469	-700	-532	-1,237
경 상 수 지 / GDP	-11.5	-4.0	-6.3	-4.8	-9.6
상 품 수 지	178	563	1,338	1,618	1,299
수 출	5,471	4,447	4,804	5,774	5,953
수 입	5,293	3,884	3,466	4,156	4,654
외 환 보 유 액 ^{주)}	1,540	1,247	1,240	1,514	1,776
총 외 채 잔 액	20,941	21,603	24,756	24,803	25,165
총 외 채 잔 액 / GDP	171.7	184.4	222.8	224.9	209.3
D S R	18.6	24.1	29.2	34.9	41.2

주: 2014~2017년 수치 출처는 IMF 또는 OECD, 2018년 출처는 EIU.

자료: IMF, EIU, OECD

□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 하락

- 몽골은 오유 톨고이 광산 1단계 사업 완료('13)에 따른 광물 수출 확대로 2014년 상품수지 흑자전환 하였음. 이후 2017년 중 석탄 및 구리 가격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품수지 흑자 폭이 20% 가량 증가하고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(-6.3%) 대비 감소한 -4.8%를 기록함
- 2018년에도 오유 톨고이 광산 2단계 프로젝트 본격화로 인한 기계장비 등 자본재 수입 증가,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대중 수출 감소, 서비스 및 소득 수지 적자 지속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다시 확대될 수 있음.

□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 누적으로 외환보유고 부족 및 대외지급능력 매우 취약

- 자원개발 관련 정부의 인프라 투자 및 대외차입 증가로 외채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이 222.8%, 외채 원리금상환비율(Debt Service Ratio, D.S.R)이 29.2%를 기록하는 등 대외지급능력이 매우 취약함.

- 한편, 외환보유액은 2017년 중 국제 원자재 가격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, 오유 톨고이 광산 2단계 개발에 대한 투자 유입 효과로 전년대비 22% 정도 증가한 15억달러(GDP의 1%, 월평균수입액의 2.5개월분 해당 규모)을 기록하였음.
- 다만, 대외차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7년중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이 224.9%, 외채원리금상환비율(D.S.R)은 34.9%로 추정됨.

□ 구제금융 및 국채 발행을 통한 외환보유고 확충으로 채무불이행 위험 완화

- 몽골은 1991년부터 총 5차례 IMF 구제금융*을 지원받았으며, 2016년 9월 중 대외지급능력 악화로 구제 금융을 요청하여 지원조건, 금액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 옴.

* 5차례 IMF 구제금융(백만 달러) : 33('91), 59('93), 49('97), 41('01), 223('09)

- 몽골은 수년간의 쌍둥이 적자 심화 및 해외직접투자(FDI) 이탈현상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2017년 5월 IMF의 몽골에 대한 구제금융 승인, 중국 인민은행과의 통화스왑 만기연장 합의 등으로 약 55억 달러의 대외유동성을 확보함.
- 2017년 10월에는 미화 8억 달러 상당의 국채 신규 발행(이자 5.6%, 만기 5.5년)으로 2018년 1월중 만기 도래 예정이던 미화 6.6억달러 상당의 국가채권 리파이낸싱에도 성공함.

Ⅲ. 정치 · 사회동향

1. 정치안정

□ 2016년 의회내각 교체에도 불구하고 계파 간 갈등 등의 정치 불안 요소 존재

- 민주당(Democratic Party)은 2012년 총선에서 인민당(MPP)에 승리하며 제1당을 차지한데 이어 2013년 대선에서도 민주당 출신의 엘베크도르지(Elbegdorj) 대통령이 50.9%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함.

- 민주당은 76석 중 34석을 차지하였으나 과반에는 미치지 못하여 26석을 차지한 인민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정국을 운영해옴.
- 그러나, 민주당 집권기(2012~16년) 동안 외국인 투자 급감으로 인한 경기 침체, 정당 내 계파 간 갈등 등에 따른 민심 이탈로 지지도가 지속 하락한 결과, 2016년 6월 총선에서 인민당(Mongolian People's Party)의 압승으로 의회 집권 정당이 교체됨.
- 2016년 총선에서는 전체 의석수(총 76석) 중 인민당 65석을 차지한 데 비해 민주당은 9석에 불과
- 인민당이 2020년까지 의회 내 절대적인 의석(2/3 이상)을 확보함에 따라 정치적 안정성은 이전보다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, 2017년 9월 인민당 총리 등 내각의 총사퇴 과정에서 드러난 인민당 내 계파 갈등 심화 등의 정치 불안 요소 존재함.

□ 정치적인 부정부패 문제로 기인한 정치적 불안정성 높은 수준

- 몽골은 정치인, 고위공직자의 뇌물 수수, 비리 등 부정부패와 관료주의가 만연하고 관련한 법적 통제장치가 미약해 국민들의 신뢰가 낮은 편임.
- 2015년 10월 국회는 국제투명성기구(Transparency International)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면대상 범위 확대 및 범죄자의 복역기간 감면 등을 골자로 한 사면법 개정안을 통과시킴.
- 2016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(CPI)에 따르면 몽골은 87/176위, 38/100점으로 낮은 수준임.

2.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

□ 2008년 이후 반정부 시위 발생빈도 감소 등 사회안정도 양호한 수준

- 2008년 총선 직후 부정선거 논란으로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*하는 등 정국 혼란을 겪었으나, 민주화 진전에 따라 이후 실시된 선거는 모두 별다른 소요사태 없이 이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사회가 안정된 모습을 보임.

* 2008년 반정부 시위 당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발생해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됨.

□ 불균형 성장에 따른 빈곤 및 실업문제 심화

-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 도시 및 계층에 집중되어 계층·지역 간 빈부 격차가 심각함. 특히, 도시 외곽 지역은 사회 인프라가 미흡하고 교육 환경이 열악해 신분 상승의 기회가 제한됨.
- 2016년 인간개발지수(HDI)에 따르면 몽골은 188개국 중 92위로, 2014년 아시아개발은행(ADB) 통계 기준 몽골인구의 21.6%가 국가빈곤선(National Poverty Line) 아래로 집계되었으며, 2012년 기준 지니계수는 0.34로 다소 소득불평등도가 높음
-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도 구하고 전문 인력과 비숙련 인력의 수급 균형으로 인해 총 실업률은 10.4%, 청년실업률은 14.7%의 높은 수준을 지속함.

3. 국제관계

□ 중국, 러시아에 대해 중립노선 유지하면서 다자간 외교 추진

- 중국과 러시아는 몽골의 양대 교역·투자대상국으로 대몽골 영향력 확대를 위해 경쟁 구도가 지속되고 있으나, 몽골은 중립노선을 견지하며 양국과 적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.
- 중국-러시아-몽골 3국은 최근 3차례('14.9월, '15.7월, '16.6월)에 걸쳐 정상 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중국의 '실크로드 경제벨트', 러시아의 '유라시아 대통로', 몽골의 '초원의 길'을 연결하는 경제회랑(Economic Corridor) 건설에 합의하고, 삼자간 공동계획 연구소를 울란바토르 내 설립 및 물류 터미널 공사사업에 착수할 예정임.
- 또한 중국의 '일대일로(One Belt, One Road)*' 정책의 일환으로 교통망 확충 및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을 위해 대대적인 재정지원과 개발을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임.
- *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것으로, 중국 주도로 인프라 연계는 물론 통상·산업·지역개발을 아우르는 중국의 대외경제 그랜드 플랜이자 국제무역질서 재편 전략
- 한편, 몽골은 '제3의 이웃정책'을 바탕으로 과도한 중국·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한국, 미국, 일본 등 제3의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활발한 다자외교 추진하고 있음.

- 2016년 4월 인도와 10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, 동년 6월에는 일본과 최초로 경제동반자협정(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, EPA)을 발효*함.

* 몽골과 일본은 각 5,700개, 9,30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데 합의

- 2016년 7월 이후 한국과도 경제동반자협정(EPA) 체결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관세 및 투자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연구가 진행 중임.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- 외채 만기구조는 양호하나 OECD 회원국 ECA의 금융지원액을 일부 연체 중
 - 2017년 9월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의 승인금액은 총 15.8억 달러(단기 0.2억 달러, 중장기 15.6억 달러)로 단기외채비중은 1.3%로 만기구조가 양호하나, 중장기 승인금액 중 7백만 달러를 연체 중임.

2. 국제시장평가

- 국제신용평가 3사 모두 신용등급 'B-' 수준 유지
 - Fitch 등 국제신용평가 3사는 재정건전성 및 대외지급능력 악화를 이유로 2016년 중 몽골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강등하였으나, IMF 구제금융 지원을 포함한 대외유동성 확보 등을 근거로 종전의 평가등급을 유지함.
 - 한편, Moody's는 2018년 1월초 몽골 정부의 정부 부채 리파이낸싱 성공,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등을 바탕으로 다른 국제신용평가 2사와 동일한 'B-' 수준으로 평가 등급을 1단계 상향 조정함.

<표 5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종전 평가 등급
당 행	D2 (2017. 2.)	D2 (2016. 2.)
OECD	6등급 (2017. 6.)	6등급 (2016. 6.)
Moody's	B3 (2018. 1.)	Caa1 (2017. 3.)
Fitch	B- (2017. 11.)	B- (2016. 11.)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- 국교 수립 : 1990년 3월 26일(북한과는 1948년 10월 15일)
- 주요 협정 : 무역협정('91년),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('91년), 문화협력협정('91년), 투자보장협정('91년), 이중과세방지협약('93년) 세관 분야협력협정('93년), 사회보장협정('06년), 수형자이송협정('07년), 사증발급간소화협정('12년)
- 해외직접투자 현황 : 2017. 9월말 누적 기준 투자금액 449백만 달러(579건)
- 교역규모 : 2017년 양국 간 교역규모는 2억 42백만 달러를 기록함.
 - 몽골 교역규모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: 수출 4.6%, 수입 0.18%

<표 6>

한·몽골 교역 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구 분	2014	2015	2016	2017	주요 품목
수 출	347	246	209	228	자동차, 기호식품, 석유제품
수 입	24	46	10	14	동제품, 기타금속·비금속광물
교역규모	371	292	219	242	-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V. 종합의견

- 2011년 17%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던 몽골은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며 2016년 1.0%를 기록함. 반면 최근 석탄, 구리 등 주요 수출 원자재 가격 회복,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2017년 경제성장률은 2.03%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- 자원개발과 연계한 정부 인프라 투자 및 자본재 수입 증가로 수년간의 재정·경상수지 적자가 심각하였음. 다행히 2017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대, IMF의 구제금융 지원 승인 등 외화유동성 확보에 성공하며 GDP 대비 경상 및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각 -4.8%, -8.7%로 감소함.
- 기존 집권당인 민주당의 경제정책 실패로 2016년 총선에서 인민당이 2/3 이상의 의석 확보하여 정치적 안정성이 다소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나, 인민당 내 계파 간 갈등 심화 등으로 정치적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음.
- 장기간 쌍둥이 적자로 대외차입이 증가하면서 2017년중 GDP 대비 총외채 비중 및 외채원리금상환비율(D.S.R)이 각 224.9%, 34.9%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. IMF 등 국제기구를 비롯한 인접 국가들로부터 대외차입을 통한 외화유동성 확보에는 성공하였으나, 중장기적으로 대외지급능력은 여전히 취약한 수준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.

조사역 김도현 (☎02-6255-5727)
E-mail: dohyunkim@koreaexim.go.kr